

공공의 적

2002, 감독 강우석

서울 강동경찰서 강력계 2 반의 강철중과 송행기 형사는 폭력배들을 반 죽여 팬 뒤 뺏은 마약을 가지고 돌아가던 중, 송행기 형사가 감사팀에 뒷거래 사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결국 검찰의 압박을 받을 거라는 불명예를 버티지 못해 송행기는 철중이 잠시 담배를 피러 자리를 비운 사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강철중은 빼돌린 마약을 숨기고 검찰 대상이 된다. 하지만 통장이나 집안 수색 중 확실한 마약거래 정황이 없어 철중은 계속해 형사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비리사건이 들쭉날쭉 이후 강력 2 반은 엄충일이라는 엄격한 반장으로 교체가 되면서 강력반에 긴장감이 감돈다.

그 와 중에도 철중은 집에 있던 장독대에 숨겨둔 마약을 하루 빨리 마약상에 팔아 없애려고 여러가지로 애쓰지만, 그의 막무가내고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사줄 사람은 없는 듯하다. 그러던 비가 오는 한밤, 잠복근무 중이던 철중은 전봇대 뒤에서 어쩔 수 없이 불일을 보는데 그 때 철중과 부딪히는 검은 그림자 때문에 똥 범벅이 되어, 가차없이 달려가 사내의 뒤통수를 후려친다. 휘청이며 밀려가는 사내지만 다시 철중이 주먹을 날리려는데 희번득이는 물체가 철중의 눈 밑을 때리고 튕겨나간다. 철철 흐르는 피에 눈을 감싸쥐고 주저않는 철중이지만 결국 검은 그림자의 남자는 놓치게 된다. 일주일 후, 철중이 검은 그림자와 시비가 붙었던 근처에서 칼로 난자당한 노부부의 시체가 발견되는데 단서는 아무것도 없다. 시체를 무심히 보던 철중에게 문득 빗속에서 마주쳤던 우비의 사내가 떠오른다. 그 칼! 철중이 분노를 삭히며 보관했던 칼 한자루. 그의 칼은 시체에 새겨진 칼자국과 일치한다. 그리고 철중은 그는 기억한다. 우비를 입은 그 남자의 뒷모습과 스쳐간 느낌을.... 철중은 피해자의 아들인 펀드매니저 규환을 만나고 그가 직감적으로 그때의 그 남자 그리고 살인자임을 느끼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도 없다. 철중은 단지 그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미행에 취조, 구타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잡으려 하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 규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결국 그는 눈에 가시 같던 철중을 강력계 형사 보직에서 박탈시키지만, 특유의 집요함과 강과 싸움실력으로 기필코 아작을 내기 위해 계속해 연쇄살인마 규환을 쫓는다.

Motive



From Russia with Love I Huma - Huma I melómanos

https://www.youtube.com/watch?v=2z5rMNH_yTI

비록 형사라는 사명에 엄격한 엄반장이라는 사람이 첫 등장하며 기강을 잡는 모습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엄반장의 압도감이 그 공간을 지배하는 느낌보다는 엄반장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저 사는게 중요한 생존형 형사들의 모습에

약간은 무겁지만 코믹스러운 From Russia with Love I Huma 라는 노래를 Motive 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훈련소에서 사회와 처음 떨어져 영성하게 짝이 없는 훈련병과 어떻게든 그 훈련병들의 기를 죽이려 애쓰는 조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영화 속 강력계 2 반처럼 현장에서 본인이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면 기가 눌러 그저 폭력적인 경험으로 끝나겠지만,

영상으로서 사진으로 그리고 그저 타인으로 멀리 바라보는 것은 그와 상반된다고 생각해 이 사진을 Motive 로 가져와봤습니다.

불편 한 자루 / 강력 2반 사무실

서울강동경찰서 강력 2반에 비리형사가 자살한 이후 새롭게 부임한 엄충일 반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깐깐하게 생긴 엄반장은 엉망진창인 강력계를 보며 사무실 서랍이나 사물함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책상에 쌓아 올린다.

엄반장은 기강이 불량한 강력반의 상태를 보고 분노한 눈으로 쌓여 있던 것 중 테니스 공 하나를 든다.

엄반장 : 내가 잘못 찾아온 거 아니지?
(강력계 형사들을 둘러보며) 이새끼들 완전 개판이구만! 이거!!

책상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허리에 손을 얹는 엄반장.

엄반장 :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줄 알아?
자유.

남형사는 엄반장이 불편한 듯 한 표정으로 째려본다.

엄반장 : 형사한테는 그런 거 없어.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뭐 전화 한 통 못 받을 수 있어.

엄반장은 결국 분노해 손에 들고 있던 테니스 공을 벽에 집어 던진다.

엄반장 : 그런데! 형사는 못 받을 수 없어! 이새끼들아!!
근무이탈이야.
(형사들을 노려보며) 전부 서럽 열어봐.

엄반장은 형사들을 번 갈아가며 노려보지만, 강력반 막내는 선배 형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고 선배 형사들은 짜증이 나는 듯 뒷짐 진 채 고개만 떨군다.

엄반장 : 뭇들 해 열지 않고!!

이형사가 마지 못해 먼저 서랍을 열어 보여준다.
이형사의 어수선한 서랍을 보고는 엄반장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강력반 막내 김형사가 서랍을 열고, 서랍에는 수사기록물과 같은 것들이 가지런하게 정돈 되어있다.
엄반장은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김형사를 바라본다.
서류는 커녕 성인물, 골프 잡지와 같은 잡동사니가 쌓인 남형사의 서랍이 보인다.

엄반장 : (서랍 속에서 잡지를 하나 꺼내 들어 돌돌 만다.) 하이고. 취미가 아주 다양하시구만. 응?
쓰... 이거 형사라는 새끼들이. (돌돌 말은 잡지로 남형사의 머리를 친다.)
(말은 잡지를 남형사의 가슴에 찌른다.) 야! 너 형사 맞냐? 응? 맞아?

엄반장의 행동에 기분이 나쁜 듯 남형사는 자신을 찌르던 말은 잡지를 꼭 움켜 쥘다.

엄반장 : (남형사를 노려보며) 어쭈. 너 지금 개기는거야?

남형사 :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좀.

엄반장 : 너 몇 살이야?

남형사 : 55요.

엄반장 : 뭐!?
(무안한 표정으로 잡지를 책상에 던지며 손을 허리춤에 찬다.) 미안하다.

남형사 : (건성으로) 괜찮습니다.

엄반장 : 안 괜찮으면!
(빈자리를 고개로 가르키며) 저기 누구 자리야?

남형사 : (건성으로) 강형사자리인데요.

엄반장 : 강형사?
아~ 강철중이? 그새끼 지금 어디있어?

남형사는 자신도 모르겠다는 건성의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본다.

엄반장 : 열어봐.

남형사는 강철중 형사의 서랍을 연다.

텅 빈 서랍이 열리고 그 속에서 모나마 볼펜 한 자루가 데굴데굴 굴러 나온다.

엄반장 : (어의없다는 웃음으로 입술을 깨물며) 하! 이 새끼 이거 아예 살 생각이 없는 새끼구만?

